

일반 연제(Ⅲ) - 19

최근 5년간 약진으로 입원한 환자의 고찰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1986~199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고우석, 윤재일

약물을 내복, 주사, 흡입, 좌약, 경피 등의 방법으로 투여한 결과 본래의 사용 목적과 달리 예기치 않게 발생한 피부발진을 약진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에 입원하여 약진으로 진단받은 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5년간 피부과에 입원한 1156명의 환자중 약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54명으로 입원환자의 4.7%를 차지하였다.

2. 연령 분포는 6개월에서 77세로 평균연령은 33.7세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녀 모두 각각 27명이었다.

3. 피부발진의 형태는 발진형 발진(30.8%), Stevens-Johnson 증후군(23.1%), 급성 담마진(11.5%), 중독성 표피괴사용해증(11.5%), 다형 홍반(9.6%), 고정 약진(5.8%), 광과민증(3.8%), 태선양 약진(1.9%)의 순이었다.

4. 원인 약제는 총 30종류로 diphenylhydantoin, ampicillin, acetylsalicylic acid, carbamazepine이 흔하였으며 17예(31.5%)에서는 원인 약제를 밝히지 못하였다.

5. 동반된 증상으로는 소양증(51.0%)과 발열(46.9%)이 흔히 관찰되었다.

6. 검사소견으로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32.7%이었고 백혈구 증다증이 26.5%, 호산구 증다증이 16.3%이었다.